

7) 왜성대(倭城臺)

해룡면 신성리 산1번지에 있다. 신성리산성이 공식명칭이지만 왜곡된 명칭이다. 신성리산성이라 부르면 마치 우리가 쌓은 성같이 느껴지고, 정유재란 때 이 땅을 짓밟았던 왜적이 쌓은 성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병의 성에 누대(樓臺)가 있다고 '왜성대'라 부른다. 그러나 문헌에는 예교(曳橋) 또는 왜교성(倭橋城)이라 쓰고 일본에서는 순천성이라 부른다.

예교와 왜교는 한유리의 조선시대 이름이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 개편을 하기 전까지도 예교성이 예교마을에 속했는데, 일본인들이 멋대로 신성리에 예속시키고 신성리산성이라고 사적지로 지정한 것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답습했다. 이 땅에 부사로 재임하면서 증평지(昇平志)』를 저술한 이수광은 이름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망대(海望臺)라고 고쳤는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제가 붙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진주성싸움과 예교성 전투에 참전했던 섬호(剡湖) 진경문(陳景文)의 『침호집』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유년 가을에 왜적이 호남을 크게 침범했다. 평행장(平行長, 소서행장)이 순천부의 남쪽 예교(曳橋)에 퇴거(退據)했는데, 이른바 예교란 곳은 산의 형태가 우뚝 일어난 모양이 호랑이가 엮드린 것 같다.

삼 면의 끝은 바다이고 한 면은 물에 이어 있다. 순천부에서 좌수영에 이르는 길이다. 척 동쪽은 광양의 척유(斥由)와 이어져 경계가 된다. 남쪽은 남해섬의 열린 바다에 접했는데 장도(獐島)가 2리쯤에 있고, 서쪽에는 호두(狐頭, 여섯머리)가 1리 남짓하게 떨어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다. 석침(石沾)은 그 북쪽 10리 밖에 있고 해농창 들 끝이다.

평행장이 설험(設險)하고 그 위에 흙을 더해 성을 쌓고 수천의 군인을 수용하였다. 오층 망루를 지어 돌과 흙으로 드리우고 기와와 벽돌로 덮었다. 모양이 나는 날개 같다. 옆에 줄줄이 있는 토고(土庫)에 군기와 군량을 저장했고, 밖에 튼튼한 성을 한 겹 쌓았으며, 그 북쪽 연륙된 곳에 호자(濠子)를 팠다.

동서쪽의 바다와 접한 곳에 배를 띄워 드나든다. 그 00에 한 띠성(帶城)을 쌓았고, 동서쪽 끝 바다 가운데 문루(門樓)를 지어서 흙으로 덮었는데, 사면을 거기서 살펴보았다.

밖으로 빙 둘러 목책을 두 겹으로 수축했으며, 그 북쪽 일 면에 한 겹의 성을 더 설치해 위예다 여장(女牆)을 쌓아 포 구멍을 벌집같이 냈다. 내성에서부터 외성까지 흙집이 수천 루나 즐비하며, 동쪽에 선창이 있는데 적선이 정박하는 곳이다.

라고 서술해 예교의 위치·지형, 성의 형태·구조 등을 표현했다. 오층의 망루, 문루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은 왜성대라고 부른다.

선월(船月)은 '배들이', '배달이'를 한자로 기록한 마을이름이다. 예교와 왜교도 '옛다리', '옛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예, 왜는 소리웁김이고 교는 뜻웁김이다. 성의 이름과 싸운 곳은 지명을 그대로 쓴다. 행주산성·교룡산성·진주산성처럼 예교도 지명, 곧 마을이름이다.

다리를 걷어올렸다가 다시 내린다고 예교, 왜가 성을 쌓고 다리를 놓았다고 왜교로 풀이한 책들이 있는데, 이는 한자의 뜻에 매인 풀이다. 예나 왜나 그 소리가 옛날에는 '예'이므로 예교·왜교로 글자를 달리 썼을지라도 읽는 소리는 '옛다리'이다. 그런데 우리말 지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자의 음 그대로 예교, 왜교로 읽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말 이름을 한자를 빌려 표기했기 때문이다.

예교란 기록은 『체종실록』 지리지에도 있다. 요컨대 예교, 왜교는 현재 한유리의 옛 이름

‘옛달’, ‘옛다리’를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여기에 왜가 성을 쌓았다. 그래서 예교성을 왜교성으로 기록했고, 주민들은 왜성대라 부른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 때 왜성대 지역을 신성리에 소속시켜 신성리산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해룡면 성산리 뒷산에 검단산성(檢丹山城)이 있다. 신성리의 예교성, 곧 왜성대를 강제하기에 좋은 고지로, 지금은 성터만 남아 있다. 한성(漢城) 또는 조선성(朝鮮城)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명나라 유정(劉綎)과 권율이 주둔하고 예교를 공략하던 성이다. ‘검단마을’에 있기 때문에 검단산성이고, 그 고개를 ‘검단이재’라 부른다. 이 산성은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았다.